

17/05/14(주) 주일예배 / 제목 :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엡 6:1~3) p.316

(1)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 효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基督教)는 이 세상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흔히 “예수쟁이들은 제 부모도 몰라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유인즉,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 불효하기 때문이 아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 1~2계명에 걸리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효도하는 것은 참된 효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들은 부모님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실례가 십계명 중 5계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 중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제 5계명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경한다”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부모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대는 점점 약해져서 부모에 대한 효도개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무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일방통행(一方通行)이 피차를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흔히들 효(孝)라고 할 때 자식들이 부모님께 좋은 옷을 해드리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종종 찾아 뵈고, 부모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봉양해 드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 들어가는 것이 하도 힘들니까 일류대학 들어가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효(孝)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효(孝)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더 더욱 힘든 일이 있다면 좋은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요셉은 부모를 존귀하게 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가하면 압살롬은 부모를 거역하고 슬프게 하여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압살롬의 돌무덤을 지날 때

는 저주의 표로 돌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좋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론 /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1. 순종해야 합니다. (1절)

좋은 자녀가 되려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청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hearing은 그냥 듣는 것인 반면에, listening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어찌면 10번, 50번, 100번 이상 들은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를 쳐 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공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감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듣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 안에서”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순종을 말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보다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한다는 것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 “내 아들이야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3:22)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둘째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려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부모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거역하는 자식은 부모님을 자랑하기는커녕 부모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긴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James A. Garfield / 1831~1881)는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통령 자리에 앉은 어머니'란 제목으로 일화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가필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지만 책을 살 수 없어 남의 책을 빌려 공부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필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세상의 아이들 중에 매우 불행한 아이다. 어머니가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해 미안하구나.”

그러면 가필드는 밝은 얼굴로 대답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친구 중엔 나보다 더 가난한 아이도 있는 걸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부디 훌륭하게 되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어머니는 격려하며 기도해주었습니다. 가필드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부하여 훗날대학

교 총장이 되었고 188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가필드는 늙으신 어머니를 부축하여 식장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앉을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필드는 옆에 선채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가필드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주신 어머니를 이 자리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오로지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하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식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필드의 효성은 잘된 일의 공은 자신이 차지하고 잘못된 원인을 부모 탓으로 돌리는 작금의 현대인들이 본 받아야 할 지극한 효행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1. 순종해야 합니다. (1절)

2. 공경해야 합니다. (2절)

순종과 공경은 다릅니다. 순종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공경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경’(恭敬)이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높이는 모습입니다. 영어성서에는 공경을 ‘honor’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는 ‘명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인데 이 간은 몸 안에서 5백 가지가 넘는 기능을 하고 천 여 가지 이상의 효소를 생산합니다. 간이 몸 안에서 중요한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겁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트’가 된 이유는 부모를 간처럼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라는 이유입니다. 이토록 육신의 간이 소중한 것을 알거든 부모도 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흥허물이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자식과 부모사이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흔히 “부모대접을 받으려면 부모다워야지” “어른대접을 받으려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나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냐? 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 부모”라는 사실이 더욱 귀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2절 하) 본문 2절 하반 절에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경할 때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을 인간에 대한 윤리에서 첫째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다른 모든 것을 잘해도 위선이거나 가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이든 부모를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7:10~13)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자신의 재물과 재산을 공동체에 맡기고는 부모님이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데도 '고르반'을 이야기하며 부모님께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봉양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고르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봉양하는 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일수록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디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잘 해 드릴까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모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싫든 좋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는다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잠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틈틈이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어 찾아뵙고 대화하며 건강을 돌봐 드리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합니다. 이때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비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함은 형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셈과 야벳처럼 부모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 부모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끄집어내어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허물과 수치도 덮어줍니다.

넷째로, 부모님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2절으로 보면 (창 47: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늙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또 서러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모른 척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진히 섬기며 대접했습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부모를 멀리하고 멸시하는 자녀들이 점점 그 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며,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핵심 :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됩시다.

요약정리 /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1. 순종해야 합니다.(1절)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라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경해야 합니다.(2절)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첫째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일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실수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모님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 드리는 것입니다.